대한물리치료학회지 제2권 제1호 1990
KAPT Vol. 2, No. 1, 65-74, 1990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물리치료과
이 충 휘

ABSTRACT

Work-Related Stress among Physical Therapists

Yi Ch'ung-hwi, Ph.D., R.P.T., O.T.R.
Dept. of Physical Therapy
Andong Nursing and Health Junior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degree of work-related stres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excessive stress among clinical physical therapists. One thousand and five physical therapists surveyed nationwide met the established criteria for inclusion in the study. The respondents were an average age of 27.1 years, 34.5% were married, and 61.2% were female. Most of the respondent (48.1%) worked in local clinics. The average stress score was 50.9. Analysis-of-variance test demonstrat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tress among treatment facilitie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reatment facilities (general hospital, local hospital, clinic), number of patients treated per day, job satisfaction, low back pain and work-related stress, respectively. Work-related stress was unrelated to matters of sex, marital status, education. Hospital administrators, physical therapydirectors, and individual therapists should work within their organizations to reduce work stress and its detrimental effects.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reventive measures to decrease the work-related stress.

Key words : Work-related stress; Physical therapists.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하여 순간 순간 크고 작은 생활사건(life event)들에 대처하면서 살아 가며, 본질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생활사건들은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응이 요구된다. 한편 현대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현상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적응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은 급기야 신체 및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배정이, 1989). 또한 현대사회의 급속히 빠른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이에 관련된 질병들 즉 위궤양, 편두통, 불안, 우울증 등이 증가한다(Schuster 등, 1984).

한편 현대의료에서 재활치료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재활의학에서도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고가의 의료장비와 전문직종간의 협력체계가 있어야만 원활하고 알찬 진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인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가장 복잡한 조직에 속하다(성수원, 1987).

Bates와 Moore(1975)는 병원직원들 가운데 간호사들이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질병위험에 노출되기가 쉽고,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환자들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므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스트레스는 크건 작건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되면서 개인에게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는 문제에 대한 빠른 인식과 수행능력을 갖게 하여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되나, 지나칠 경우에는 부적응 상태로 에너지를 고갈시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시킨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고 하는데, 특히 업무환경의 특성 및 요구(need)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라고 한다. 업무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물리치료사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고, 개인적인 성장,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반복 또는 지속적이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근무태만, 과실, 결근, 이직, 그리고 소진(burn-out)을 초래하여(Freudenberger, 1977 ; Pines 등, 1981) 양질의 의료제공 및 물리치료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특히 환자와 많은 시간을 접촉하고 있으면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지나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형성의 장애로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근무중에 직면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물리치료사가 양성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이라는 조직내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접하는 환자의 상당수는 호전되는 속도가 느린 만성 질환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환자, 보호자, 그리고 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와 과도한 업무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할 것이다. 물리치료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흥미와 열의가 있고 또한 안정감이 있다면 의료재활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면 그러한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고, 미국(Brust 1986 : Decard와 Present, 1989)과 영국(Grant, 1985 ; Hunter, 1983 ; Mottram과 Flin, 1988)에서 기술적인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의료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병원조직내의 잠재적인 직업성 위험인자(potential occupational hazard)로 인식하고 있다(Clever와 Omenn, 1988).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의 요인을 구명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989년 6월 현재 물리치료사 면허취득자수는

4,821명이며, 그 중 2,841명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취업된 인원은 2,263명이다(박지환 등, 1989). 연구자는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특수학교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회원을 제외한 1,952명에 대하여 우편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수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1989년 12월 13일에 1차로 발송되었으며, 1990년 1월 24일에 1차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았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차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그 결과 1990년 3월 5일까지 1,010매(51.7%)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한 5매를 제외한 나머지 1,005매(51.5%)를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을 이용하였으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우편봉투안에는 설문지와 반송우표를 붙인 회송용 봉투, 그리고 요통치료에 관한 소책자를 동봉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원래 물리치료사의 직업관련성 요통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것이며, 분석에 사용된 것은 그 중에서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특성, 그리고 업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로는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주요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특성, 심리적인 특성, 행동적인 특성, 요통발생과 관련된 특성이었다. 이 중에서 심리적인 특성중의 하나인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김매자와 구미옥(1984)이 개발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30개이었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는 업무량과 관련된 문항 5개, 의사 또는 직장상사와 관련된 스트레스문항 7개, 환자 또는 보호자와 관련된 문항 5개,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문항 6개, 업무 이외의 일이지만 스트레스요인인 문항 3개, 업무활동에 대한 보수 및 보상에 관한 문항 2개, 기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척도의 점수는 리커트(Likert)형태의 5점척도를 이용하였다. 응답자가 스트레스 문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면 0점, 항상 해당되었으면 4점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최대 점수는 120점이었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척도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는데 $\alpha=0.87$이었다.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는 재활의학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감안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문지 작성의 사전 단계로 질문의 내용, 어귀 구성, 질문 형태, 질문순서 등에서 오류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27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하였다.

3. 분석방법

물리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근무환경 특성, 심리적인 특성을 기술적인 통계방법으로 알아보았고, 각각의 특성별로 스트레스정도를 비교하였다. 이과정에서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분산분석에서 F-값이 유의한 경우에는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방법 중의 하나인 Student-Newman-Keuls방법을 이용하여 각 집단간의 평균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물리치료업무의 단순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직무만족여부와의 관련성은 X^2-검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38.8%, 여자가 61.2%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75.8%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연령은 27.1세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자가 65.5%로 많았고,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 이하가 88.1%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이하가 75.4%를 차지하였다. 물리치료 경력은 2년에서 5년사이가 44.5%로 가장 많았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N=1,005)

특 성	구 분	빈도(%)
성	남	390(38.8)
	여	615(61.2)
연령(세)	20-29세	762(75.8)
	30-39세	223(22.2)
	40세 이상	20(2.0)
결혼여부	기혼	347(34.5)
	미혼	658(65.5)
교육정도	전문대졸이하	885(88.1)
	대졸 이상	120(11.9)
월평균수입	30만원 이하	270(26.9)
	30-50만원	487(48.5)
	51-70만원	162(16.1)
	71만원 이상	86(8.5)
근무경력	6개월 이하	17(1.7)
	7-12개월	81(8.1)
	13-24개월	172(17.0)
	25-60개월	447(44.5)
	61개월 이상	288(28.7)

2. 응답자의 근무환경 특성

응답자의 근무환경 특성은 표2와 같다. 응답자 중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48.1%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 재활원의 순서이었다. 일일치료환자수는 20명미만인 경우는 27.2%이었고,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 이하인 경우는 32.2%에 불과하였다.

표 2. 응답자의 근무환경 특성 (N=1,005)

특 성	구 분	빈도(%)
근무기관	종합병원	342(34.0)
	병 원	82(8.2)
	의 원	483(48.1)
	재 활 원	71(7.1)
	기 타	27(2.6)
일일치료환자수	20명이하	273(27.2)
	20-29명	274(27.3)
	30-39명	184(18.3)
	40-49명	113(11.2)
	50명 이상	161(16.0)
주당근무시간	44시간 이하	324(32.2)
	45-50시간	257(25.6)
	51-60시간	324(32.2)
	61시간 이상	100(10.0)

3. 응답자의 심리적인 특성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 여부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45.3%가 만족하였고,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정도는 평균 50.9점이었다(표 3).

표 3. 응답자의 심리적인 특징

특 성	구 분	빈도(%)
직무만족	만족	448(45.3)
	불만족	541(54.7)
	계	989(100.0)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50.9±13.0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하였다(표 4). 성별, 결혼여부, 교육정도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성	남	50.6±13.5	−0.59

	여	51.1±12.6	
결혼여부	기혼	49.9±13.8	−1.79
	미혼	51.4±12.5	
교육정도	전문대졸이하	50.6±12.7	−1.85
	대졸 이상	53.3±14.9	

5. 근무환경 특성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근무환경 특성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표 5).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가 의료기관 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다.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의료기관 형태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느 병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비교 검정방법의 하나인 Student-Newman-Keuls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종합병원과 의원,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가장 통계학적으로 높았다.

일일치료환자수가 20명 이하인 군과 21명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서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21명 이상을 치료하는 군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주당근무시간을 44시간 이하인 군과 45시간 이상인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근무환경 특성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또는 F-값
의료기관	종합병원	54.3±12.4	16.7*
	병 원	50.3±13.5	
	병 원	49.1±12.5	
일일치료환자수	20명 이하	47.3±13.0	−7.5*
	21명 이상	53.4±12.3	
주당근무시간	44시간 이하	52.1±13.4	2.0
	45시간 이상	50.3±12.8	

* $p<0.05$

6. 응답자의 직무만족 여부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를 직무만족 여부와 비교하였다(표 6). 그 결과 물리치료사가 직무에 만족할수록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6. 응답자의 직무만족 여부와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직무만족	만 족	48.7±12.5	−4.8*
	불만족	52.7±13.2	

*$p<0.05$

7. 요통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요통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표 7). 그 결과 요통을 호소하는 군에서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7. 요통과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t-값
요 통	있음	54.0±12.7	8.3*
	없음	47.4±12.4	

*$p<0.05$

8. 물리치료업무에 대한 견해와 직무만족

물리치료사들에게 물리치료업무에 대하여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지,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8가 같다. 물리치료직에 대하여 만족하는 군에서는 물리치료업무가 단순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리치료직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물리치료업무가 단순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물리치료업무에 대한 견해와 직무만족

물리치료업무에 대한 물리치료 업무에 대한 견해	직무만족 여부			X^2-값
	만족(%)	불만족(%)	계(%)	
단순하다	150(33.5)	309(57.1)	459(46.4)	54.1*
단순하지 않다	298(66.5)	232(42.9)	530(53.6)	
계	448(100.0)	514(100.0)	989(100.0)	

$p<0.05$

IV. 고찰

이 연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연구시점 현재에 임상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만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의 직업관련성 요통유병률, 그리고 요통발생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이용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인용할 때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만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석하질 못하였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종교활동, 성격, 흡연량과 횟수, 음주량과 횟수, 즐기는 운동,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정책적인 특성 등에 관한 변수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특히 물리치료사가 주로 치료하는 환자의 형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단계에서 고려하질 못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우편설문지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응답률이 51.7%이었다. 이러한 응답률은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응답률 10-25%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김경동과 이온죽, 1986). 한편 Babbie(1973)는 설문지의 회수율이 50%이면 분석의 목적상 무난하다고 하며, 60%이면 좋은 편이고, 70%가 넘으면 아주 훌륭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의 회수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답자와 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비응답자의 특성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보관 중인 회원신상기록을 참조하였다. 회원신상기록중에서 이용이 가능했던 변수는 비응답자의 성, 연령, 결혼여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이었다. 응답자의 특성과 비응답자의 특성 중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임상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별의미가 없을 정도의 차이라고 판단된다(표 9).

표 9. 응답자와 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응답자(%)	비응답자(%)	
성	남	390(38.8)	226(39.3)	$X^2=0.02$
	여	615(61.2)	349(60.7)	
	계	1005(100.0)	575(100.0)	
연령 세	평균± 표준편차	27.1± 4.7	28.7±5.7	t=6.02*

*p<0.05

결혼 여부, 근무기관의 형태를 응답자와 비응답자간에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회원신상기록은 주로 입회할 때 작성되었기 때문에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자료와는 정확성 면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완방법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의 임상경력이나 월평균 수입, 흡연, 일일치료환자수, 근무시간 등에 대한 변수를 응답자와 비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 가지 다행한 사실은 이 연구의 규모가 지금까지 시행된 물리치료사에 대한 연구의 표본크기보다 상당히 큰 규모로 시행된 점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리적인 증상으로 식욕부진 또는 과식(uncontrolled eating), 소변을 자주 보거나, 불면증, 지적 의식은 있으나 의지가 상실되어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lethargy), 근육의 긴장(tension)과 통증, 설사, 주통, 빈박(tachycardia), 심계항진(palpitation), 발한증진 등이 나타난다(Scully, 1980). 스트레스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장염, 궤양, 심근경색, 천식성 발작(asthmatic attacks)과 같은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우울, 약물중독, 정신병과 같은 정서 장애(emotional disorder)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소진현상이 나타나는데 남을 돕는 전문직에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종사한 후에 많이 나타난다(이광자, 1990).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항상 아픈 사람들과 상대를 하기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 소진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국외에서 의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보모, 작업치료사와 같은 인간서비스직업(human service profession)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Cherniss, 1980). 따라서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진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가능한한 최대로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히 독립시켜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담, 평가, 치료를 하면서 재활팀에서 핵심적인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손상받기 이전의 상태로 신체적인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 원상복귀되기가 힘들고, 회복의 속도도 상당히 느린 경우에 물리치료사가 설정한 비현실적인 치료목표, 변화시킬 수 없는 환자의 상태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기가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들은 환자, 보호자, 의사 혹은 직장상사,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서도 곤란하지만 지속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소진하게 되고, 그 결과 잦은 결근, 이직, 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이르게 되면 의료재활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병원행정가는 물론이고 물리치료의 책임자들도 물리치료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나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과 업무량을 살펴볼 때, 치료사 1인당 일일치료환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는 응답자의 72.8%이었다. 이 결과는 노영철과 백종민(1988)이 보고한 87.0%보다 낮았다. 한편 장정훈과 장익선(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86.0%가 하루에 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경홍과 이충휘(1986)의 보고에 의하면 일일치료환자수가 21명 이상인 경우는 59.6%로 이었다. 노영철과 백종민(1988), 장정훈과 장익선(1988)의 연구는 주로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주로 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가 많았기 때문에 일일치료환자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어경홍과 이충휘(1986)의 연구대상자는 주로 서울과 중부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조사의 결과를 전체물리치료사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전국의 물리치료사를 대상

으로 처음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형태별 치료환자수를 따로 결과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도 생각한다

물리치료사의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가 67.8%로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노영철과 백종민(1988)에 의하면 의료기관내에서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는 46.8%이라고 한다. 또한 장정훈과 장익선(1988)에 의하면 의료기관내에서 물리치료실이 지하에 위치한 경우는 46.8%이라고 한다. 또한 장정훈과 장익선(1988)에 의하면 물리치료실의 넓이가 10m² 이하인 경우가 68.0%이었다. 이와 같이 조도와 환기가 불량하고 협소한 공간이지만 오히려 일일 치료환자수는 상당히 많고,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가 75.4%인 불리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를 줄이기위해서는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성, 결혼 여부, 교육정도 변수가 모두 관련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나온 이유는 아직도 국내의 물리치료직은 교육정도에 따른 업무의 구분이나 승진 등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Herzberg(1976)는 직무만족이 직무수행과 인간관계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Kahn(1965)은 직무만족과 생산성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Proter와 Lawler(1968)는 직무만족 정도가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고, 그 외에도 전문직에 있어서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다(Love, 1977 ; Marthy, 1977 ; McMahon 등, 1977 ; Oliver, 1978). 직무만족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45.3%가 만족하였고, 물리치료 업무가 단순하고 응답할수록 물리치료직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리치료직이 단순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지, 아니면 불만족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직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물리치료직에 불만족할수록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와 요통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스트레스는 요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요통 발생을 줄이려면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 중에서 통제가 가능한 변수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Patterson 등, 1986). 이 연구에서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만 측정하여 살펴보았지만 업무 이외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생활사건 들도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다른 질병 증상과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Gates와 Starkey(1986)는 스트레스가 높게되면 요추의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고, 척추의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어 요추손상을 받기 쉽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로 스트레스와 요통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요통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업무관련성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1989년 6월에 취업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1,952명이었다. 이 중에서 우편설문지에 응답한 1,005명(51.5%)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1989년 12월 13일부터 1990년 3월 5일까지 이었다.

물리치료사의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50.9이었고, 표준편차는 13.0이었다. 스트레스와 관련있는 변수는 근무기관, 일일치료환자수, 직무만족, 요통이었다. 근무기관 중에서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일일치료 환자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에 스트레스가 높았고, 직무에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리고 요통을 호소하는 물리치료사가 요통을 호소하지 않는 물리치료사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 결혼, 교육변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병원행정가, 물리치료실 책임자,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병원행정가나 물리치료실 책임자는 업무관련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 근무환경 조건을 우선 순위로 개선하려는 정책노력과 물리치료사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동, 이온죽: 사회조사방법. 박영사, 1986.

김매자, 구미옥 : 간호원이 근무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개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2) : 28-37, 1984

노영철, 백종민 : 부산시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업무환경과 업무량에 관한 조사연구. 지산간호보건전문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9(2) : 27-40, 1988

박지환, 정낙수, 송영화 : 국내 물리치료사의 현황 분석과 그 효율적 활용방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10(2) : 35-46, 1989

배정이 : 정신과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연구. 대한간호 28(1) : 77-86, 1989

성수원 : 물리치료사의 업무량과 이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1987

이광자 : 간호사의 소진 경험에 관하여. 대한간호 29(1) : 42-47, 1990

이충휘, 어경홍 :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7(2) : 53-65, 1986

장정훈, 장익선 : 전북지역 물리치료의 현황 및 업무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9(1) : 27-34, 1988

Atwood CA, Woolf DA: Job satisfaction of physical therapists.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7(1) : 81-86, 1982

Broski D : The job satifaction of allied health professionals. J Allied Health 7 : 281-287, 1978

Brust PI : Student burn out : The Clinical instructor can spot it and manage it. Clinical Management in physical Therapy 6 : 18-21, 1986

Cherniss C : Staff Burnout : Jot Stress in Human servic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Inc, 1980

Clever LH, Omenn GS : Hazards for health care workers. Am Rev Public Health 9 : 273-303, 1988

Curtis KA : Physical therapist role satisfaction in the treatment of the spinal cord-injured person. Phys Ther 65 : 197-200, 1985.

Deckard GJ, Present RM : Impact of role stress on physical therapists emotional and physical well-being. Phys Ther 69 : 713-718. 1989

Freudenberger H : Brun-out : The organizational menace.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31 : 26-27, 1977

Gates SJ, Starkey RD. Back injury prevention. AAOHN J 34(2) : 59-62, 1986

Grant M : Anxiety and stress in physiotherapy students. Unpublished Certificate of Education thesis, Wolverhampton, Polytechnic, 1985

Herzberg FI, Ziegler DJ : Personality

Theor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6

Hunter A : The management of mid-career physiotherapists. Unpublished DMS thesis. Thames polytechinic, London, 1983

Jacobsen BF : Characteristics of physical therapy role models. Phys Ther 58 : 560, 1978

Kahn RL : Production and job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275-289, 1965

Love JE :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nd individual job satisfaction. Am J Med Tech 43(12) : 1135-1143, 1977

Marthy J : A survey of attitudes toward two motivating factors. Am J Med Tech 43(12) : 673-677, 1977

McMahon JT, Invancevich JM, Matteson MT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limate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Am J Med Tech 43 : 15-19, 1977

Mottram E, Flin RH : Stress in newly qualified physiotherapists. Physiotherapy 74(12) : 607-612, 1988

Oliver RE : Interpersonal values and job satisfaction of medical technollgists. Am J Med Tech 44 : 855-858, 1978

Patterson PK, Eubanks TL, Ramseyer R. Back discomfort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bus driver. AAOHN J 34(10) : 481-484, 1986

Pines A, Aronson E, Kafry D :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NY, Free Press, 1981

Porter LW, Lawler EE :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ll, 1968.

Schuster ND, Nelson DL, Quisling C : Burnout among physical therapists. Phys Ther 64 : 299-303, 1984

Scully R : Stress in the nurse. Am J Nurs 80 : 911-915, 1980

Squires A, Livesley B : Beware of burnout. Physiotherapy 70 : 235-238, 1984

Williams E : Stress management. Physiotherapy 75 : 304-308, 1989

Wolfe GA : Burnout of therapists : Inevitable or preventable? Phys Ther 61 : 1046-1050, 1981